

이혼 가정 자녀의 긍정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가구 소득의 조절효과

최효식
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Predictors of Positive Changes in Children with Divorced Parents: Focused on Moderating Effects of Family Incomes

Hyo-Sik Choi

Department of Education,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이혼 가정 자녀의 긍정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혼 가정 한부모의 지각된 사회적 차별 경험, 양육 어려움, 자녀와의 대화시간, 자녀의 인터넷 사용문제, 이혼 후 자녀의 긍정적 변화 간의 구조적 관련성을 확인하고, 가구 소득에 따른 구조적 관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분석 자료는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자료의 한부모 1,114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과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한부모가 지각한 차별 경험은 양육어려움($\beta=.354$), 인터넷 사용문제($\beta=.234$)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부모가 지각한 양육 어려움은 자녀와의 대화시간($\beta=.192$), 자녀의 긍정적 변화($\beta=.218$)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인 영향, 자녀의 인터넷 사용문제($\beta=.440$)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녀의 인터넷 사용문제는 부모의 이혼 후 자녀의 긍정적 변화($\beta=.199$)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한부모가 지각한 차별 경험은 자녀와의 대화시간, 양육 어려움, 인터넷 사용문제를 매개로 자녀의 긍정적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beta=.167$)가 확인되었다. 셋째, 다집단 분석 결과, 가구 소득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계수의 크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이혼 후 자녀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한부모가 차별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사회적 문화 형성과 한부모의 양육 과정에 대한 공식적, 비공식적 지지가 중요하며, 한부모 가정 자녀의 인터넷 과다 사용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실천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predictors of positive changes in children with divorced parents and to demonstrate the structural path among the perceived experience of social discrimination, parenting difficulties,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internet use of children that related to positive changes based on family incomes.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1,114 single parents from divorced families sourced from a study on the status of single-parent families in 2015. The results of this study by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the moderating effect verification with family incomes and multi group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single-parent's perceived experience of social discrimination turned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parenting difficulties(=.354) and children's internet use (=234). Single-parent's perceived parenting difficulties also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children's internet use (=440) but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both parent-child communication(=.192) and positive changes of children(=.218). Interestingly, internet use of children demonstrate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ir positive changes. Second, parent-child communication, parenting difficulties, and children's internet use had a negative mediating effect with the relationship where single-parent's perceived experience of social discrimination had an effect on positive changes of children(=.167). Second, between the family groups based on family incomes,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esented a practical proposal to help single parents not experience social discrimination and to help decrease the internet use of children to improve positive changes.

Keywords : Perceived experience of social discrimination, Parenting difficulties, Parent-child communication, Problematic internet use, Positive changes

이 논문은 2017년도 춘천교육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Hyo-Sik Choi(Chuncheon National Univ. of Education)

Tel: +82-33-260-6435 email: s970218@cnu.ac.kr

Received April 9, 2018

Revised April 25, 2018

Accepted June 1, 2018

Published June 30, 2018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부모의 이혼은 아동기 및 청소년기 자녀가 겪은 가장 큰 역경 중 하나이다. 부모의 이혼은 자녀의 삶을 완벽하게 변화시키며[1], 그 자체로 부정적 자녀 발달의 원인이 된다[2]. 이혼 가정의 자녀는 일반 가정의 자녀보다 행동, 정서, 인지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3-6].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후 자녀의 학교생활, 일상생활, 학업성취 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밝힌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혼 후 자녀의 학교생활, 일상생활, 학업성취 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이혼 가정의 자녀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하여[7-12], 부모 변인인 사회적 차별 경험, 양육 어려움, 자녀와의 대화시간, 자녀 변인인 인터넷 사용문제가 이혼 후 자녀의 학교생활, 일상생활, 학업성취 측면에서의 긍정적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 이혼 가정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인 가구 소득에 따라 구조적 관계가 달라지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지각된 차별 경험은 스트레스를 증폭시켜 정신 건강과 신체적 건강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3]. 한 부모 가정의 부모 및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사회적 차별 경험이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7, 12]. 특히, 이혼 가정의 어머니는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8-9]. 부모의 심리적 특성은 양육 과정으로 전이되어 자녀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14-15], 이혼 가정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지각한 사회적 차별 경험에 기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는 자녀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육 어려움에 기인한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6-17]. 이는 자녀의 사회적, 정서적 문제는 부모 자신의 사회적, 정서적 건강에 기초하여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전이되기 때문이다[18]. 양육 어려움을 느끼는 부모들은 스트레스로 인해 온정적 양육행동 수준이 낮고, 지지적이지 못한 양육 반응을 보인다[19-20]. 특히, 이혼

후 제한된 자원을 가진 부모들은 더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자녀에게 투자하는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며, 이에 자녀는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21].

과도한 인터넷 사용은 대인관계 및 정신적 문제를 유발하고, 심리적 안녕감을 낮출 수 있다[22-24]. 자녀의 인터넷 과다 사용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및 대화시간, 가족기능 등이 보고되고 있다[11, 25-27]. 이혼 가정의 자녀들은 특히 인터넷 과다 사용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경향성이 보고되고 있다[28]. 이혼 가정의 자녀들은 양부모 가정의 자녀보다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상실감을 더 많이 경험하며[29], 이혼 가정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게 된다[28, 30].

일반적으로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은 양육참여, 양육스트레스, 긍정적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친다[31]. 경제적 어려움은 결혼 관련 디스트레스와 엄격한 양육을 촉발하여 자녀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31]. 특히, 낮은 소득 가정의 자녀는 이혼에 따른 적응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2]. 물론 일부 연구는 이혼 가정의 경제적 자원의 차이가 자녀의 학교생활 정도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33]. 이혼 가정에서 가구 소득이 자녀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가구 소득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의 구조적 관계의 효과크기가 달라지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 가정의 자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본 대다수 연구들이 단순 관련성을 살펴본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자녀 변인이 이혼 후 자녀의 학교생활, 일상생활, 학업성취 측면에서의 긍정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 둘째, 이혼 가정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 대다수가 적은 표집의 데이터를 사용한 반면, 본 연구는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표집의 대표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차별점이 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가구 소득에 따른 이혼 가정 한부모의 지각된 사회적 차별 경험, 양육 어려움, 자녀와의 대화시간, 자녀의 인터넷 사용문제, 이혼 후 자녀의 긍정적

변화 간의 구조적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 1) 한부모의 지각된 사회적 차별 경험, 양육 어려움, 자녀와의 대화시간, 자녀의 인터넷 사용문제, 이혼 후 자녀의 긍정적 변화 간 구조적 영향 관계를 확인한다.
- 2) 가구 소득에 따라 한부모의 지각된 사회적 차별 경험, 양육 어려움, 자녀와의 대화시간, 자녀의 인터넷 사용문제, 이혼 후 자녀의 긍정적 변화 간 구조적 영향의 정도가 달라지는지 확인한다.

2. 본론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구조모형에 기초한 다집단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가구 소득에 따른 한부모의 지각된 사회적 차별 경험, 양육 어려움, 자녀와의 대화시간, 자녀의 인터넷 사용문제, 이혼 후 자녀의 긍정적 변화 간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전담하여 수집한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자료는 2015년 9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다단계층화추출법에 기초하여 전국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2,552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34].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에 기초하여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이면서, 중학생 이상 연령(만13세 이상~만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1,1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한부모가 지각한 차별 경험

한부모로서 경험한 부당, 차별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의 3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동네나 이웃주민, 학교나 보육시설, 가족 및 친척’과 관련하여 부당한 일이나 차별을 얼마나 경험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며, 응답 방식은 ‘① 전혀 차별을 받지 않았다 ② 차별을 받지 않은 편이다 ③ 차별을 받은 편이다 ④ 심한 차별을 받았다’ 중 하나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34]. 점수가 높을수록 한부모로서 경험한 부당, 차

별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를 보여주는 Cronbach's α 는 .91로 확인되었다.

2.3.2 자녀와의 대화시간

한부모와 자녀 간 대화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의 1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귀하는 평소 하루에 자녀와 얼마나 시간(대화시간 포함)을 보냅니까?’이며, 응답 방식은 ‘① 전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② 30분 미만 ③ 30분~1시간 미만 ④ 1시간~2시간 미만 ⑤ 2시간 이상’ 중 하나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34].

2.3.3 양육 어려움

한부모로서 느끼는 양육 어려움을 확인하기 위해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의 8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자녀의 진로지도가 어렵다, 자녀양육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 방식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거의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중 하나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34].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를 보여주는 Cronbach's α 는 .81로 확인되었다.

2.3.4 인터넷 사용문제

자녀의 인터넷 사용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의 한부모가족 자녀의 인터넷 사용현황을 측정하는 9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인터넷 문제로 가족들과 자주 싸우곤 한다, 인터넷에 빠진 이후 폭력적(언어적, 신체적)으로 변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 방식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중 하나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사용문제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34].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를 보여주는 Cronbach's α 는 .95로 확인되었다.

2.3.5 자녀의 긍정적 변화

한부모가 된 후의 자녀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의 6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자녀의 학교 성적, 자녀와 나의 관계, 자녀와 친척들과의 관계, 자녀와 친구들과의 관계, 자녀의 일상생활 태도, 자녀의 학교생활 태도’ 영역에서의 변화를 물어보는 문

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응답 방식은 ‘① 매우 나빠졌다 ② 나빠진 편이다 ③ 변화가 없다 ④ 좋아진 편이다 ⑤ 매우 좋아졌다’ 중 하나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34].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긍정적 변화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를 보여주는 Cronbach's α 는 .86로 확인되었다.

2.3.6 가구소득

가구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 조사의 1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지난 1년 동안 귀하 가구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로 구성되어 있다.

2.4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icroData Integrated Service)의 승인을 받은 후 2015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 처리를 위해 AMOS 20.0과 SPSS 20.0 프로그램을 사용했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계수를 통해 검증하였다. 둘째, 구조모형 분석은 측정 모형과 구조모형을 검증하는 2단계 접근 방법을 사용하였다.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χ^2 , CFI(comperative fit index: CFI), TLI(tur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에 기초하여 판단하였다. 그리고 측정변인은 문항꾸러미(item parceling) 방법에 기초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셋째, 가구 소득에 따른 다집단 분석을 위해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구조동일성 검증을 거쳤다.

3. 연구결과

3.1 연구 대상자 특성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의 개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한 부모의 성별은 남성 429명(38.5%), 여성 685명(61.5%), 부모의 연령은 30대 이하 93명(8.3%), 40대 820명(73.6%), 50대 이상 201명(18.0%), 학력은 중졸 이하 98명(8.8%), 고졸 이하 752명(67.5%), 대학 이상 264명(23.7%)이며, 한부모가 된 기간은 5년 미만 203명

(18.2%), 5~10년 미만 432명(38.8%), 10년 이상 461명(41.4%), 무응답 18명(1.6%), 자녀의 성별은 남아 590명(53.0%), 여아 524명(47.0%), 만 나이 평균은 16.15($SD=1.53$)이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114$)

Variables	Category	<i>n</i>	%
Parents' sex	male	429	38.5
	female	685	61.5
Childs' sex	male	590	53.0
	female	524	47.0
Parents' Age (yr)	<30	93	8.3
	<40	820	73.6
	>50	201	18.0
Years for being single-parent (yr)	<5	203	18.2
	6-10	432	38.8
	10>	461	41.4
	unknown	18	1.6

3.2 기술통계와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변인의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충족 기준인 절대값 왜도 2, 첨도 4보다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35].

Pearson 상관분석에 기초하여 측정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한부모가 지각한 차별 경험은 자녀와의 대화시간, 자녀의 긍정적 변화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양육 어려움과 인터넷 사용문제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녀와의 대화시간은 양육 어려움, 인터넷 사용문제와 부적 상관관계, 자녀의 긍정적 변화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양육 어려움은 인터넷 사용문제와 정적 상관관계, 자녀의 긍정적 변화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인터넷 사용문제와 자녀의 긍정적 변화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3.3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의 측정학적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에 기초한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df=84, N=1,114)=325.444, p<.001, TLI=.972, CFI=.978, RMSEA=.051(90\% \text{ 신뢰구간}=.045 \sim .057), SRMR=.038$ 로 확인되어 측정학적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Table 3]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요인부하량, 평균 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이 .50이상, 합성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가 .70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도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AVE값과 잠

재변인의 상관계수 제곱값을 비교한 결과 상관계수 제곱값보다 AVE값이 큰 것으로 확인되어 판별타당도를 확보하였다[36-39].

Table 2. Correlation, mean, standard deviation, skewness, and kurtosis of variables (N=1,11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1															
2	.82**	1														
3	.77**	.74**	1													
4	-.05	-.05	-.073*	1												
5	.17**	.16**	.17**	-.15**	1											
6	.29**	.29**	.30**	-.18**	.60**	1										
7	.24**	.23**	.25**	-.11**	.51**	.68**	1									
8	.32**	.33**	.36**	-.16**	.31**	.44**	.43**	1								
9	.31**	.31**	.34**	-.17**	.28**	.41**	.42**	.89**	1							
10	.33**	.34**	.36**	-.18**	.31**	.46**	.45**	.87**	.85**	1						
11	-.10**	-.13**	-.14**	.18**	-.24**	-.28**	-.25**	-.25**	-.22**	-.26**	1					
12	-.10**	-.15**	-.17**	.20**	-.15**	-.25**	-.21**	-.27**	-.26**	-.31**	.44**	1				
13	-.12**	-.13**	-.16**	.12**	-.16**	-.21**	-.20**	-.20**	-.20**	-.22**	.32**	.51**	1			
14	-.16**	-.16**	-.17**	.13**	-.14**	-.19**	-.17**	-.18**	-.20**	-.20**	.34**	.47**	.57**	1		
15	-.16**	-.18**	-.22**	.21**	-.20**	-.24**	-.24**	-.28**	-.28**	-.29**	.42**	.52**	.54**	.65**	1	
16	-.11**	-.16**	-.17**	.21**	-.20**	-.27**	-.24**	-.26**	-.25**	-.30**	.45**	.54**	.57**	.64**	.78**	1
M	1.75	1.75	1.73	3.17	2.85	2.37	2.27	2.07	1.94	2.06	2.88	3.14	2.99	3.08	3.01	3.02
SD	.80	.78	.80	1.07	.61	.60	.67	.90	.88	.91	.59	.65	.59	.56	.59	.57
Sk	.79	.71	.80	.21	-.47	.04	.10	.62	.67	.63	-.19	.33	.44	.69	.36	.38
Ku	-.10	-.30	-.19	-.98	.02	.04	-.30	-.39	-.47	-.39	1.82	1.55	2.97	3.16	2.10	3.22

* $p < .05$, ** $p < .01$

1: Experience of social discrimination(1), 2: Experience of social discrimination(2), 3: Experience of social discrimination(3), 4: Parent-child communication, 5: Parenting difficulties(1), 6: Parenting difficulties(2), 7: Parenting difficulties(3), 8: Problematic internet use(1), 9: Problematic internet use(2), 10: Problematic internet use(3), 11: Positive changes of children(1), 12: Positive changes of children(2), 13: Positive changes of children(3), 14: Positive changes of children(4), 15: Positive changes of children(5), 16: Positive changes of children(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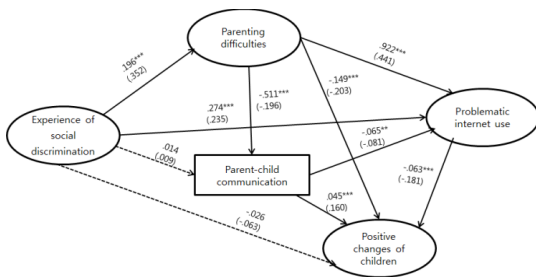
Table 3. Results of measurement model testing (N=1,114)

Latent variable	Measurement variable	b	S.E.	C.R.	β	AVE	CR
Perceived experience of social discrimination of single-parent	Experience of social discrimination(1)	1.00			.92		
	Experience of social discrimination(2)	.95	.02	42.57***	.89	.85	.94
	Experience of social discrimination(3)	.91	.02	38.04***	.84		
Parenting difficulties	Parenting difficulties(1)	1.00			.67		
	Parenting difficulties(2)	1.28	.06	22.39***	.88	.80	.92
	Parenting difficulties(3)	1.28	.06	21.62***	.78		
Problematic internet use	Problematic internet use(1)	1.00			.95		
	Problematic internet use(2)	.96	.02	59.92***	.93	.89	.96
	Problematic internet use(3)	.98	.02	58.14***	.92		
Positive changes of children	Positive changes of children(1)	1.00			.51		
	Positive changes of children(2)	1.39	.09	15.22***	.64		
	Positive changes of children(3)	1.33	.09	15.66***	.67		
	Positive changes of children(4)	1.40	.09	16.52***	.75	.76	.95
	Positive changes of children(5)	1.71	.10	17.59***	.86		
	Positive changes of children(6)	1.67	.09	17.70***	.88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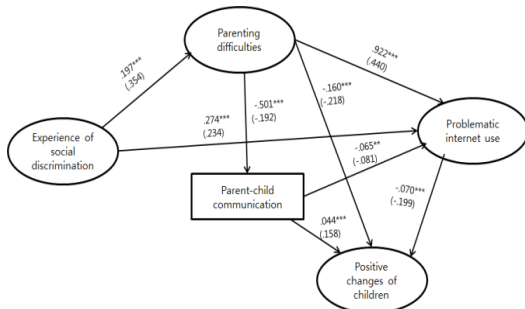
3.4 구조모형 검증

한부모가 지각한 차별 경험, 자녀와의 대화시간, 양육 어려움, 인터넷 사용문제, 자녀의 긍정적 변화 간 관계를 [Fig. 1] 과 같이 설정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chi^2(df=95, N=1,114)=347.987, p<.001, TLI=.971, CFI=.977, RMSEA=.049(90\% \text{ 신뢰구간}=.043 \sim .054), SRMR=.037$ 로 확인되었다.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중 한 부모가 지각한 차별 경험이 자녀와의 대화시간, 자녀의 긍정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모형의 간명성을 확보하기 위해[40]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은 직접효과 2개 경로를 삭제한 경쟁모형을 연구모형과 비교하였다. 경쟁모형의 적합도 또한 적절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chi^2(df=97, N=1,114)=351.466, p<.001, TLI=.971, CFI=.977, RMSEA=.049(90\% \text{ 신뢰구간}=.043 \sim .054), SRMR=.040$]. χ^2 차이검증 결과 두 모형 간 적합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chi^2(df=2)=3.479, p>.05$). 이에 간명성이 높은 경쟁모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으며, 최종모형은 자녀의 긍정적 변화 변량의 18.5%를 설명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 $p<.05$, ** $p<.01$, *** $p<.001$

Fig. 1. Structure model



* $p<.05$, ** $p<.01$, *** $p<.001$

Fig. 2. Revised model

[Fig. 2] 의 경로계수 추정치를 보면, 한부모가 지각한 차별 경험은 양육어려움($\beta=.354$), 인터넷 사용 문제($\beta=.234$)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한부모가 지각한 차별 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 어려움을 더 크게 지각하고, 자녀의 인터넷 사용 문제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부모가 지각한 양육 어려움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대화시간이 감소하고($\beta=-.192$), 자녀의 인터넷 사용 문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440$), 자녀의 긍정적 변화는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218$). 자녀와의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자녀의 인터넷 사용 문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81$), 자녀의 긍정적 변화는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158$). 자녀의 인터넷 사용 문제가 증가할수록 자녀의 긍정적 변화는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199$).

비모수 붓스트랩 방법(non-parametric bootstrapping)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매개효과 검증 결과,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한부모가 지각한 차별 경험은 자녀와의 대화시간, 양육 어려움, 인터넷 사용 문제를 매개로 자녀의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Total effect (β)	Direct effect (β)	Indirect effect (b, β)	Bias-corrected 95% CI
Perceived social discrimination→Positive changes of children	-.068 (-.167)	.000	-.068 (-.167)***	-.201 ~ -.134

*** p<.001

3.5 다집단 분석

가구 소득에 따라 한부모가 지각한 차별 경험, 자녀와의 대화시간, 양육 어려움, 인터넷 사용문제, 자녀의 변화 간 관계에서 경로계수의 크기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집단 분석을 위해 형태동일성, 측정동일성, 구조동일성 검증의 단계를 거쳤다. 가구 소득에 따른 집단 구분은 선행연구에 기초하여[41] 데이터의 중위값을 기준으로 저소득 집단과 고소득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형태동일성 확보를 위해 저소득 집단과 고소득

집단을 구분하여 모형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저소득 집단의 적합도 지수는 $\chi^2(df=95, N=600)=226.863, p<.001$, TLI=.973, CFI=.978, RMSEA=.048, SRMR=.040, 고소득 집단의 적합도 지수는 $\chi^2(df=95, N=514)=244.234, p<.001$, TLI=.962, CFI=.970, RMSEA=.055, SRMR=.043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집단의 적합도 지수 또한 $\chi^2(df=190, N=1,114)=471.104, p<.001$, TLI=.968, CFI=.975, RMSEA=.036, SRMR=.040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형태동일성이 성립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측정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저모형인 형태동일성 모형과 요인계수 동일성 제약을 부가한 완전측정동일성 모형을 비교하였다. χ^2 차이검증 결과 두 모형 간 적합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elta\chi^2(11) = 14.623(p>.05)$], 이를 통해 측정동일성이 성립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구조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완전측정동일성모형과 경로 동일화 제약을 부가한 모형 간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χ^2 차이검증 결과 두 모형 간 적합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elta\chi^2(10) = 9.688(p>.05)$], 이를 통해 구조동일성이 성립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가구 소득에 따른 경로계수의 크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Table 5. Fit indices for invariance verification

model	χ^2	df	TLI	CFI	SRMR	RMSEA(90% CI)
Configural invariance	471.104***	190	.968	.975	.040	.036(.032 ~ .041)
Full metric invariance	485.727***	201	.969	.974	.040	.036(.032 ~ .040)
Structural invariance	495.415***	211	.971	.974	.041	.035(.031 ~ .039)

*** $p<.001$

Table 6. Result of multi-group comparison

Paths	Low income		High income		$\Delta\chi^2$	Δdf
	b	β	b	β		
Perceived social discrimination→Parenting difficulties	.196***	.358	.192***	.342	.01	1
Perceived social discrimination→Parent-child communication	-.018	-.012	.055	.04	.575	1
Parenting difficulties→Internet uses	.91***	.434	.99***	.471	.371	1

Perceived social discrimination→Internet uses	.264***	.23	.286***	.242	.109	1
Parent-child communication→Internet uses	-.031	-.041	-.101**	-.119	2.683	1
Parenting difficulties→positive changes of children	-.166***	-.233	-.125**	-.163	.481	1
Perceived social discrimination→positive changes of children	-.007	-.019	-.051**	-.119	2.444	1
Parent-child communication→positive changes of children	.036***	.139	.058***	.188	1.623	1
Internet uses→positive changes of children	-.072***	-.21	-.052*	-.143	.503	1
Parenting difficulties→Parent-child communication	-.438***	-.159	-.617***	-.25	.983	1
all strains					9.688	10

* $p<.05$, ** $p<.01$, *** $p<.001$

4.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가구 소득에 따른 이혼 가정 한부모의 지각된 사회적 차별 경험, 양육 어려움, 자녀와의 대화시간, 자녀의 인터넷 사용문제, 이혼 후 자녀의 긍정적 변화 간의 구조적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모형의 직접효과 검증 결과, 한부모가 지각한 차별 경험 수준은 양육 어려움과 자녀의 인터넷 사용 문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각된 사회적 차별 경험이 스트레스를 증폭시켜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13]. 또한, 한부모의 지각된 차별 경험이 자녀의 인터넷 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모의 정신 건강이 자녀에게 전이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18]. 낮은 가족 기능이 자녀의 인터넷 사용 문제를 촉발시킨다는 점을 고려할 때[27], 한부모가 지각한 차별 경험이 높을수록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낮은 가족 기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녀의 인터넷 사용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각된 차별 경험이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대처 스타일 및 대처 전략이 조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13], 본 연구결과는 이혼 가정의 한부모가

사회적 차별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부모가 지각한 양육 어려움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대화시간이 감소하고, 자녀의 인터넷 사용 문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학교생활, 일상생활, 학업성취 측면에서의 긍정적 변화는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본 연구결과는 일반 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양육 어려움에 기인한 양육 스트레스는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선행연구[16-17]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양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와 유사하게[25-26, 42-43], 이혼 가정 한부모 가정에서 또한 부모의 양육 특성은 자녀의 인터넷 사용 문제 및 자녀의 긍정적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높은 양육 질은 자녀의 부모의 이혼 관련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를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44], 이혼 가정 한부모의 양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사회적 지지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자녀와의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자녀의 인터넷 사용 문제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긍정적 변화는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양부모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자녀 간 대화시간은 자녀의 문제행동, 인터넷 중독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11, 45-46]를 지지하는 것이다. 부모의 이혼은 그 자체로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을 감소시키는데[47], 부모-자녀 간 대화시간은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여줌으로써 인터넷 과다 사용 문제를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자녀의 인터넷 사용 문제가 증가할수록 자녀의 학교생활, 일상생활, 학업성취 측면에서의 긍정적 변화는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부모 가정 자녀의 인터넷 사용 문제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24], 본 연구결과는 한부모 가정 자녀의 인터넷 사용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구조모형의 간접효과 검증 결과, 한부모가 지각한 차별 경험은 자녀와의 대화시간, 양육 어려움, 인터넷 사용문제를 매개로 자녀의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부모 가정뿐 아니라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에서 또한 부모의 심리적 특성은 양육 과정으로 전이되어 자녀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14-15].

셋째, 가구 소득에 따른 다집단 분석 결과, 본 연구에

서 설정한 모형의 경로계수 간 효과크기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한부모가 지각한 차별 경험이 자녀와의 대화시간, 양육 어려움, 인터넷 사용문제를 매개로 자녀의 긍정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부모의 이혼은 그 자체로 자녀에게 높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정서적으로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48],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부모의 특성이 자녀의 인터넷 사용 문제 및 학교생활, 일상생활, 학업성취 측면에서의 긍정적 변화에 동일한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다수 이혼 가정 자녀의 특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적은 표집 인원을 대상으로 변인 간 단순 관련성을 살펴본 것과 달리, 이혼 가정 한부모의 특성과 자녀의 특성이 어떤 구조적 관계를 통해 이혼 후 자녀의 학교생활, 일상생활, 학업성취의 긍정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특히, 본 연구는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이혼 가정 한부모의 지각된 사회적 차별 경험, 양육 어려움, 자녀와의 대화시간이 자녀의 인터넷 사용문제, 이혼 후 자녀의 긍정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증명했다는 의의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이혼 가정의 한부모가 지각한 사회적 차별 경험, 양육 어려움, 부모-자녀 간 대화 시간, 자녀의 인터넷 사용문제가 자녀의 학교생활, 일상생활, 학업성취 측면에서의 긍정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관계를 밝힘으로써, 이혼 후 자녀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함의점을 제시했다는 학문적, 실제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에 기초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중학생 이상 연령(만13세 이상~만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심리 및 양육 특성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유아 및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문화 가정 한부모 어머니의 경우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후속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

정 한부모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횡단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혼 가정 자녀의 인터넷 사용 문제 및 학교생활, 일상생활, 학업성취 측면의 긍정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 명확한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종단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Veinberg, I., "Emotional awareness-The key to dealing appropriately with children of divorced families in schools",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vol. 209, pp. 514-518, 2015.
DOI: <https://doi.org/10.1016/j.sbspro.2015.11.281>
- [2] Kelly, J., Emery, R., "Children's adjustment following divorce: Risk and resilience perspectives", *Family Relations*, vol. 52, no. 4, pp. 352-362, 2003.
DOI: <https://doi.org/10.1111/j.1741-3729.2003.00352.x>
- [3] Amato, P. R., "Children of divorce in the 1990s: An update of the Amato and Keith (1991) meta-analysi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 15, no. 3, pp. 355-370, 2001.
DOI: <http://dx.doi.org/10.1037/0893-3200.15.3.355>
- [4] Conger, R. D., Chao, W., Adolescent depressed mood, In R. L. Simons (Ed.), "Understanding differences between divorced and intact families: Stress, interaction, and child outcome", pp. 157-175, Thousand Oaks, CA: Sage, 1996.
- [5] Lansford, J. E., Malone, P. S., Castellino, D. R., Dodge, K. A., Pettit, G. S., Bates, J. E., "Trajectories of internalizing, externalizing, and grades for children who have and have not experienced their parents' divorce or separatio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 20, pp. 292-301, 2006.
DOI: <http://dx.doi.org/10.1037/0893-3200.20.2.292>
- [6] Robbers, S., van Oort, F., Huizink, A., Verhulst, F., van Beijsterveldt, C., Boomsma, D., Bartels, M., "Childhood problem behavior and parental divorce: Evidence for gene-environment interaction",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vol. 47, no. 10, pp. 1539-1548, 2012.
DOI: <http://dx.doi.org/10.1007/s00127-011-0470-9>
- [7] J. R. Kim, H. S. Kim, "The effect of variables on depression of single parents family householder - Focusing on parental gender difference -",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 19, no. 1, pp. 143-160, 2014.
- [8] J. H. Kim, "Impoverishment of unprivileged divorcees: Their social exclusion experience in family and labor market",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 38, pp. 69-102, 2012.
DOI: <https://doi.org/10.4082/kjfm.2012.33.2.69>
- [9] H. S. Kim, E. H. Kim, "The experience of mother as divorced single-parent heads of family: The experiences from the crisis of life", *Crisisonomy*, vol. 6, no. 1, pp. 219-242, 2010.
- [10] M. J. Seo, E. S. Choi, "The effects of maternal depression on maternal parenting stress among mothers with young children: A focus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mother's and father's perceived fatherly involvement in child rear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 20, no. 5, pp. 575-594, 2016.
DOI: <http://dx.doi.org/G704-000814.2016.20.5.026>
- [11] K. J. Um, C. Y. Yun, "The effect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conversation time on problem behaviors of male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7, no. 9, pp. 595-615, 2017.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17.17.9.595>
- [12] J. E. Ye, "The effect of discrimination experiences on self-rated health and depression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2017.
- [13] Pascoe, E. A., Smart Richman, L.,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health: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vol. 135, no. 4, pp. 531-554, 2009.
DOI: <https://doi.org/10.1037/a0016059>
- [14] Breau, R. P., Harvey, E. A., Lugo-Candelas, C. I., "The role of parent psychopathology in the development of preschool children with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vol. 43, no. 5, pp. 777-790, 2014.
DOI: <https://doi.org/10.1080/15374416.2013.836451>
- [15] Goodman, S., Rouse, M., Connell, A., Broth, M., Hall, C., Heyward, D., "Maternal depression and child psychopathology: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vol. 14, no. 1, pp. 1-27, 2010.
DOI: <https://doi.org/10.1007/s10567-010-0080-1>
- [16] A. R. Kim, Y. R. Tak, "Exploring psycho-social determinants to child neglect and abuse among caregivers with young childr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 27, no. 1, pp. 81-94, 2016.
DOI: <http://dx.doi.org/10.12799/jkachn.2016.27.1.81>
- [17] H. S. Pyun, J. K. Choi, "The associations among poor single mothers' economic hardship, depressive symptoms, parenting stress, child abuse and neglect, and their children's develop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vol. 53, pp. 1-23, 2016.
DOI: <http://dx.doi.org/G704-000946.2016..53.002>
- [18] Amato, P. R., "Children's adjustment to divorce: Theories, hypotheses, and empiric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55, no. 1, pp. 23-38, 1993.
DOI: <http://dx.doi.org/10.2307/352954>
- [19] J. S. Kim, "The influences of paternal depression, self-esteem, and parenting stress on child's self-control: With mediation of warm parental behavior",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vol. 11, no. 1, pp. 29-49, 2017.
DOI: <https://doi.org/10.21213/kjcec.2017.17.1.29>
- [20] Kelleher, R. T., Shanahan, L., Calkins, S. D., Keane, S. P., O'Brien, M., "Parenting stress, parental reactions, and externalizing behavior from ages 4 to 10",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77, no. 2, pp. 388-406, 2015.

- DOI: <http://dx.doi.org/10.1111/jomf.12163>
- [21] Whiteside, M. F., Becker, B. J., "Parental factors and the young child's postdivorce adjustment: A meta-analysis with implications for parenting arrangement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 14, no. 1, pp. 5-26, 2000.
DOI: <http://dx.doi.org/10.1037/0893-3200.14.1.5>
 - [22] Anderson, E. L., Steen, E., Stavropoulos, V., "Internet use and problematic internet use: A systematic review of longitudinal research trends in adolescence and emergent adulthood", *International Journal of Adolescence and Youth*, vol. 22, no. 4, pp. 430-454, 2017.
DOI: <https://doi.org/10.1080/02673843.2016.1227716>
 - [23] Ko, C. H., Liu, T. L., Wang, P. W., Chen, C. S., Yen, C. F., Yen, J. Y., "The exacerbation of depression, hostility, and social anxiety in the course of internet addiction among adolescents: A prospective study", *Comprehensive Psychiatry*, vol. 55, no. 6, pp. 1377-1384, 2014.
DOI: <http://dx.doi.org/10.1016/j.comppsy.2014.05.003>
 - [24] Mei, S., Yau, Y. H. C., Chai, J., Guo, J., Potenza, M. N., "Problematic internet use, well-being, self-esteem and self-control: Data from a high-school survey in China", *Addictive Behaviors*, vol. 61, pp. 74-79, 2016.
DOI: <http://10.1016/j.addbeh.2016.05.009>
 - [25] S. E. Park, S. A. Lim, "Meta-analysis on predictors of internet addiction",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30, no. 3, pp. 497-534, 2016.
DOI: <https://doi.org/10.17286/KJEP.2016.30.3.02>
 - [26] H. J. Lee, S. K. Kim, S. M. Cheon, "Meta-analysis on the relationship of parent-child relationship variable to youth internet and smartphone addiction",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vol. 23, no. 2, pp. 329-348, 2016.
DOI: <http://dx.doi.org/G704-SER000009521.2016.23.2.007>
 - [27] Wartberg, L., Kriston, R., Bröning, S., Kegel, K., Thomasius, R., "Adolescent problematic internet use: Is a parental rating suitable to estimate prevalence and identify familial correlat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 67, pp. 233-239, 2017.
DOI: <https://doi.org/10.1016/j.chb.2016.10.029>
 - [28] Li, W., Garland, E. I., Howard, M. O., "Family factors in internet addiction among Chinese youth: A review of English- and Chinese-language studies", *Computer and Human Behaviors*, vol. 31, pp. 392-411, 2014.
DOI: <https://doi.org/10.1016/j.chb.2013.11.004>
 - [29] Laumann-Billings, L., Emery, R. E., "Distress among young adults from divorced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 14, no. 4, pp. 671-687, 2000.
DOI: <http://dx.doi.org/10.1037/0893-3200.14.4.671>
 - [30] Ni, X., Yan, H., Chen, S., Liu, Z., "Factors influencing internet addiction in a sample of freshmen university students in China",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vol. 12, pp. 327-330, 2009.
DOI: <http://dx.doi.org/10.1089/cpb.2008.0321>
 - [31] Conger, R. D., Conger, K. J., Martin, M. J., "Socioeconomic status, family processes, and individual develop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72, no. 3, pp. 685-704, 2010.
DOI: <https://doi.org/10.1111/j.1741-3737.2010.00725.x>
 - [32] Weaver, J. M., Schofield, T. J., "Mediation and moderation of divorce effects on children's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 29, no. 1, pp. 39-48, 2015.
DOI: <http://dx.doi.org/10.1037/fam0000043>
 - [33] Chae, S., "Parental divorce and children's schooling in rural Malawi", *Demography*, vol. 53, no. 6, pp. 1743-1770, 2016.
DOI: <http://dx.doi.org/10.1007/s13524-016-0521-7>
 - [34] https://mdis.kostat.go.kr/extract/extSurvSearchByDate.do?extcTypeDivCD=E&curMenuNo=UI_POR_P1070
 - [35] West, S. G., Finch, J. F., Curran, P. J.,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Thousand Oaks, CA: Sage, 1995.
 - [36] Bagozzi, R. P., Yi, Y.,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vol. 16, no. 1, pp. 74-94, 1988.
DOI: <https://doi.org/10.1007/BF02723327>
 - [37] Fornell, C., Larcker, D.,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18, no. 1, pp. 39-50, 1981.
DOI: <https://doi.org/10.2307/3151312>
 - [38] Hair, J., Black, W., Babin, B., Anderson, R., Tatham, R., "Multivariate data analysis (6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Prentice Hall, 2006.
 - [39] K. R. Park, H. S. Choi, E. M. Yeon, "An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attitudes toward science, science inquiry skills, and science achievements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cience Education*, vol. 37, no. 4, pp. 669-677, 2017.
DOI: <http://dx.doi.org/10.14697/jkase.2017.37.4.669>
 - [40] Martens, M. P., "The us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vol. 33, no. 3, pp. 269-298, 2005.
DOI: <https://doi.org/10.1177/0011000005274598>
 - [41] J. J. Park,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tutoring and its subjective effect by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Multi-group analysis across income",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 29, no. 3, pp. 149-168, 2011.
 - [42] I. H. Choi, J. Y. Kim, "Effects of adolescent empathy on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Family and Family Therapy*, vol. 21, no. 1, pp. 81-102, 2013.
DOI: <https://doi.org/10.21479/kaft.2013.21.1.81>
 - [43] S. H. Jeong, "The relative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s on emotional problem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3, no. 6, pp. 119-144, 2016.
DOI: <https://doi.org/10.21509/KJYS.2016.06.23.6.119>
 - [44] Wolchik, S. A., Wilcox, K. L., Tein, J. Y., Sandler, I. N., "Maternal acceptance and consistency of discipline as buffers of divorce stressors on children's psychological adjustment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vol. 28, no. 1, pp. 87-102, 2000.
DOI: <http://dx.doi.org/10.1023/A:1005178203702>

- [45] H. J. Seok,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experience of internet game addiction adolescent in the family environment", *Korean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in Social Welfare*, vol. 10, no. 3, pp. 93-124, 2016.
- [46] K. S. Kim, J. H. Kim, "A study on adolescents' level of Internet addiction by their perceived relationships with parent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 6, no. 1, pp. 15-25, 2003.
- [47] Potter, D., "Psychosocial well-being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divorce and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72, no. 4, pp. 933-946, 2010.
DOI: <http://dx.doi.org/10.1111/j.1741-3737.2010.00740.x>
- [48] Luecken, L. J., Hagan, M. J., Wolchik, S. A., Sandler, I. N., Tein, J-Y., "A longitudinal study of the effects of child-reported maternal warmth on cortisol stress response 15 years after parental divorce", *Psychosomatic Medicine*, vol. 78, no. 2, pp. 163-170, 2016.
DOI: <https://doi.org/10.1097/PSY.0000000000000251>
-

최 효 식(Hyo-Sik Choi)

[정회원]



- 2006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13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16년 9월 ~ 현재 : 춘천교육대
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학습전략, 인출